

인도 : 이영제 목사

묵	도	_____	다	같	이
기	원	_____	인	도	자
개	회	송 _____ 28장 _____	다	같	이
교	독	문 _____ 39번 _____	다	같	이
신	앙	고백 _____ 사도신경 _____	다	같	이
찬	송	_____ 246장 _____	다	같	이
기	도	_____	이	창	결
성	경	봉독 _____ 요2:13-22 _____	다	같	이
특	송	_____			
설	교	_____ 예수님은 누구 신가? _____	이	영	제
		(21. 나의 성전이신 예수님)	목	사	
찬	송	_____ 336장 _____	다	같	이
헌	금	_____	인	도	자
봉	헌	기도 _____	인	도	자
광	고	_____	인	도	자
송	영	_____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와 인자하심이 _____	다	같	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축	도	_____	인	도	자

지난 설교제목 : 길, 주, 생명, 진리, 부활, 생명의 떡, 홀과 신로, 왕, 돈는 해, 신랑, 산돌, 반석, 영, 감독, 양의 문, 선한목자, 해방자, 유월절 양, 창조주, 참포도나무

주앙교회 5대 실천강령

- ◇ 24시간 쉬지 않는 릴레이 기도로 성도 자신이 성령 받고 교우와 선교사를 위해 중보기도 한다.
- ◇ 본 교우는 모두 주 예수그리스도를 바라고 예배하여,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예수의 제자가 된다.
- ◇ 모든 교회재정(십일조, 감사, 선교헌금 등)의 지출은 선교비를 최우선적으로 배정한다.
- ◇ 선교에 주력하는 교회로 선교의 기틀을 마련하여 오는 세대에 복음과 선교정신을 물려준다.
- ◇ 교회 내 모든 기관은 선교 체제로 조직 운영하며 자발적인 봉사와 헌신으로 운영한다.

주앙교회 24시간 기도

■ 기도 참여자 ■

매일1시간 : 오전6시(차영숙) / 오후1시(이영제)
6시(김효선) 유동(이창걸)

■ 기도 제목 ■

○ 주앙교회를 위한 기도제목

24시간 릴레이 기도팀이 하루속히 완성되도록
교회의 파송선교사(김형주, 정00)님을 위해서
중국의 00교회와 리00전도사님을 위해서
주앙교회 모든 가족이 주님의 축복으로 평안할 수 있도록
윤령자 강도사님과 차녀 배수향양의 결혼을 위해서(11.25 사랑의교회)

○ 이영제 목사님을 위한 기도제목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가 넘치도록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위해서
인도차이나선교대회(11월 24-27일 캄보디아 십리암)에 특강과 교육

○ KCM을 위한 기도제목

인터넷을 전도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KCM 파송 및 협력선교사님을 위해서
캄보디아 지회 개설을 위해서
세계선교정보연구원 14기 교육이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세계미전도도종족 책자 발행을 위하여

○ 해외선교를 위한 기도제목

세계의 한국선교사님들의 영, 육 간의 건강을 위하여
아직까지 복음을 한번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을 위하여
해외 선교를 위해 수고하는 국내의 선교단체들을 위하여

교회 소식

- ♥ 주앙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 11월 30일부터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 ♥ 이영제 목사, 조성규강도사님 인도차이나선교사대회 참석과 프놈펜, 방콕에서 교육이 있습니다(11.24-12.5).
- ♥ 다음주 예배는 윤령자 강도사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 ♥ 윤령자 강도사님 차녀 배수향양의 결혼식이 11월 25일 사랑의교회에서 있습니다.

이영제 목사가 직접 연구한 히브리서 주석자료를 기초로 강해설교 합니다.

13:1-17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독자들은 이미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다(히 6:10, 33, 34). 하지만 게을리 하거나 끊어지거나 지칠 위험이 있어 지금까지 해왔던 사랑을 더 지속적으로 계속하기를 권면한다.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앞 절에서 말한 형제 사랑을 “손님대접”으로 실천의 구체적인 것을 말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다(마25:35). 초대교회에서 손님 대접은 중요한 메시지였다(딤후3:2, 딤후1:8, 벧전4:8).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창18:1-21의 아브라함이 마무레 상수리 수풀근처에서 세 사람의 손님을 영접하고 대접하였을 때 세 손님은 사라에게 이삭의 출생에 대해서 예언했다.

3절 저자는 ‘사랑’에서 ‘손님 대접하는 것’ 그리고 “같은 자, 학대 받는 자”로 확대하고 있다. ‘같은 자와 학대받는 자’는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신앙 때문에 박해받고 같은 자들을 말한다. 자신 또한 언제 그러한 형편에 처할지 모르지만 자신의 육체처럼 생각하여 돌보라고 권면한다.

4절 바른 결혼 생활과 성적인 정결을 말하고 부정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경고를 한다. “귀히여기고” Τιμος(티미오스) “값비싼, 명예를 주는, 사랑을 받는”의 뜻으로 귀하고 소중히 생각하여 지킬 것을 권면한다.

5절 “돈을 사랑치 말고” Ἀφιλάργυρος(암힐랄귀로스) “탐심이 없는, 욕심이 없는”이며 그리고 개역성경에는 τρώπος(트로포스) “태도를 바꾸어”가 빼져있다. 돈에 대한 탐욕은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 범죄하게 만든다(마6:24, 눅16:13, 딤후3:3, 딤후6:10).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환경에 만족해야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 때문이다(창28:15, 신31:6, 수1:5, 사41:17).

6절 시118:6의 인용으로 앞 절에 대한 응답형태를 취한다.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하노라**는 부정을 유도하는 수사학적 질문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대항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롬8:31).

13:7-17 필요한 신앙적인 의무들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인도하던 자” τῶν ἡγουμένων(톤 헤구메논)는 17, 24절의 지도자는 현재의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나 본문은 신앙을 지키다 죽은 지도자들을 가리킨다. 인도하던 자들이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다(행4:29, 31, 행8:25, 행13:46, 빌1:14).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종말” ἔκβασις(에크바시스)은 “출구, 피할 길, 종국”을 뜻하는 것으로 우주적인 종말이 아닌, 매일 매일 신앙생활에 대한 점검을 촉구한다. 같은 단어가 고전10:13에 ‘피할 길’로 번역되었다.

8절 “동일” αὐτός(아우토스) 불변사에서 유래한 대명사적 단수로 사용되어 단순히 ‘같다’가 아니라 ‘하나의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목 : 예수님은 누구 신가?

(20. 나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 본문 : 요15:1-15

현재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1620년 영국에서의 종교 탄압을 피하기 위하여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 대륙에 상륙한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주(移住) 후, 첫 번째 수확기였던 1621년 가을 플리머드 정착지에서 첫 번째 추수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처음부터 감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었습니다. 사실 추수한 것이 풍족했던 것이 아니라 겨울을 나려면 어렵없는 곡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셔서 이제 말라비틀어진 무말랭이 같은 이 부족한 것으로 어떻게 겨울을 날수 있냐고 불평했습니다. 그 때 한 소녀가 많은 사람들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그 부족한 상태의 추수를 보면서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 곡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그 추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물을 주어도 그것만으로 추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 비가와야 하고 햇빛이 비추어야 하고 밭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농사만들 짓던 시절의 풍습은 풍년이 되게 해 달라는, 사실상 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을 지으신 아버지가 농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이면 이제 농사는 100% 보장되는 것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부터 이 포도나무가 있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미4:4) 한것은 이스라엘의 번영을 말한 것입니다.

들 포도는 머루와 같이 작은 알맹이의 포도를 말합니다. 아주 형편없어진 포도입니다. 이런 포도는 돼지나 들짐승들이 먹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는 것은 영적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μένω(메노) “거하다”의 이 단어는 오늘 본문 안에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지가 무엇인지 알 수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 붙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함이니라”(요15:11)고 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모두가 나를 위한 것입니까?

목사님 한국 텔레비전 왔주세요



이영재 목사
주암교회 담임
침례신학교 이사

10여년전 미국 한인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목사님이 한국에 다니러 간다고 하니까 여러 사람이 다양한 부탁을 했다.

그 중에 한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꼭 부탁할 일이 있다고 했다.

목사님 "권사님 부탁은 가능하면 제일먼저 들어드릴게요!"

권사님 "목사님 미국 텔레비전은 영어만 나와서 재미가 없어요.

한국가시면 꼭 한국 텔레비전을 가져오세요.

후백이라도 괜찮으니 꼭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권사님은 한국텔레비전은 한국말이 나온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말이 안 통한다는 것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힘든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안통하면 하나님도 제일 힘드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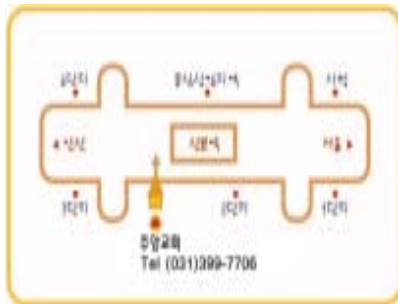
주암교회 파송, 협력하는 선교사

남아프리카공화국 김형주 선교사 / 필리핀 정형구 선교사
베트남 정00 선생 / 중국 리00 전도사 / 인도 초띠옥이 자매
파키스탄 정00 선교사 / 미국 김능수 전도사

• 예배시간 안내 •

주일 예배	오전 11시
주일 오후(성경 강해)	오후 2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수요 예배	오후 7:30분
금요 심야기도회	오후 9시

• 주암교회를 찾아오시는 길 •



대한예수교장로회
주 암 교 회
JOOANG PRESBYTERIAN CHURCH

표어

말씀으로 은혜가 가득한 교회

기도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

봉사로 사랑을 나누는 교회

선교로 기쁨이 넘치는 교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림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사 40:31)

담임목사 이 영 제
Pastor Lee, Young Jae

435-050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873-3(제일프라자 5층 본당, 사무실 4층)

교 회 : (031)399-7706 선교회(KCM) : (031)399-7705

목사관 : (031)398-7702 핸드폰 018-213-7702

Homepage : <http://kcm.co.kr/church/> Email : webmaster@kcm.co.kr